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 합동 채용박람회 지역까지 개최 확대, 양질의 일경험·훈련 확대 추진
-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가칭) 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8일(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천 선언은 지난 9.10.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기업·정부의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단체와 기업, 정부는 2026년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에게도 일자리 정보가 고르게 제공되도록 기업채용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경험·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각 경제단체와의 특화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등과 「(가칭) 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채용 여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경험·훈련 등 프로그램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청년의 미래를 밝히고 기업과 국가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청년 일자리는 정부와 기업, 국가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걱정보다 희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부·경제단체·기업이 오늘의 약속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 일자리 첫걸음 선언식 개요
2. 실천선언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744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박세은 (044-202-7423) 김형우 (044-202-7636)
	청년취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45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상보 (044-202-7435) 김연희 (044-202-7492)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우성훈 (044-202-4220)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4222)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4-7440)
		담당자	서기관	우창훈 (044-204-7441)

붙임 1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 개요

- ☐ **(목적)** 정부-경제단체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을 통해 채용·인턴·훈련 등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분위기 확산
- ☐ **(일시·장소)** 12월 8일(월) 13:20~14:2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 **참석자**
 - (정부) 노동부 장관·고용정책실장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
 - (경제단체)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상복 인력개발사업단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 ☐ **(주요내용)** ① 인사말씀 ② 실천선언식 ③ '26년 실천계획 논의
- ☐ **(주요 메시지)** : “청년의 첫걸음에 기업과 정부가 기회를 더합니다”
 - 양질의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26년 경제단체와 협업 강화
→ 합동 채용박람회, 일경험·훈련 확대 캠페인 등 성과 구체화 및 단체 특성을 반영한 협업 과제 발표
 - 정부는 경제단체와 원팀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합동 다짐
- ☐ **세부일정** * '실천 선언식'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3:20~13:25(5')	■ 개회선언 및 주요 내빈소개	매화홀(19층)
13:25~13:30(5')	■ 인사말씀 등	장관 등
13:30~13:40(10')	■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	
	- 실천 선언문 낭독 - 기념촬영	참석자 전체 (낭독: 사회자)
13:40~14:20(40')	■ '26년 실천계획 논의	참석자 전체 (비공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문

청년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경제단체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든든한 첫걸음을 보장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1.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26년 정부와 경제단체는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까지 확대해 나간다. 경제단체와 지역대학이 연계하여 지방 청년에게도 괜찮은 일자리 정보가 고르게 제공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 양질의 일경험·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경험·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한다. 신산업(AI·바이오 등) 분야의 청년 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3. 경제단체별 특화 협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과제를 실천한다.

- ① (한국경제인협회) CHO 등 ‘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 구성, 채용 여건 조사, 지방인재 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 ② (한국경영자총협회) ‘청년도약 멤버십’을 확산한다.
- ③ (대한상공회의소) 청년 눈높이에 맞춘 일경험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한다.
- ④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 제공과 중소기업 인식 개선 활동으로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 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중심 채용박람회와 연계한 청년-기업 매칭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4. 정책 수요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는 ‘원팀’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경제단체는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적극 제안한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청년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오늘의 선언은 약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년에게는 첫 일자리 경험을,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국가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는
미래투자 실천입니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청년의 첫걸음을 힘껏 밀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굳게 선언합니다.

청년의 내일을 여는 첫걸음,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8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